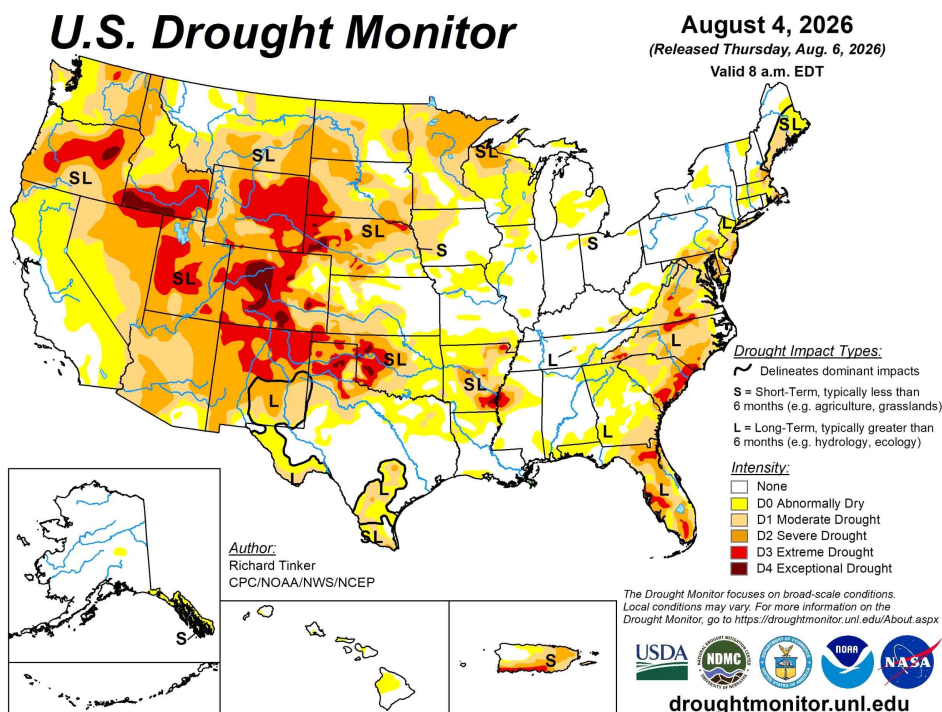


8월 1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3, No. 32)

□ 미국 기후 현황(2026/8/2-2026/8/8)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더웠던 7월이자 가장 더웠던 한 달을 보낸 뒤, 8월 첫째 주 내내 전국의 많은 지역은 작물에 불리한 고온·건조한 날씨를 겪었다. 특히 몬순과 관련된 소나기가 일시적으로 미국에 유입되지 못하면서, 미국 남서부 지역 전반에 극심한 더위와 대체로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이어졌다. 북서부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으며, 이 지역은 잠시 선선해지는 추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의 산불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대평원에서도 어려운 기상 여건이 지속되었으며, 광범위한 소나기는 캔자스주와 네브래스카주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었다. 북부 대평원에는 서늘한 날씨가 찾아왔지만, 남부 대평원에서는 지속되는 고온으로 인해 방목지와 목초지, 그리고 면화와 수수를 포함한 천수재배 여름작물의 스트레스가 더욱 커졌다. 반면, 동부에서는 산발적이거나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려 남아 있던 가뭄을 더욱 완화했으며, 전반적으로 목초지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름작물에 도움이 되었다. 대서양 연안의 여러 주에서는 주간 총 강우량이 2~4인치 이상인 지역이 흔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 중서부에서는 기온이 옥수수과 대두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임계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었으며, 서부 옥수수 벨트 일부 지역에는 매우 필요했던 비가 내려 지면을 적셨다. 서부 옥수수 벨트 일부 지역과 북부 고평원에서는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5° F 낮았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남부 로키산맥에 이르는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북부 팬핸들과 인접 지역에서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2026/8/3-2026/8/9)

미국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기상 조건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서부와 중부 대평원, 북동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우세했으며, 여러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2~8° F 높은 기온 편차를 기록했다. 반면, 북부 대평원과 미시시피강 상류 유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났다. 한편, 서부와 대평원의 많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가 우세했으며, 이 지역의 대부분 주에서는 표토 수분 부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서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습윤한 상태가 발달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주간 강수량이 평년의 두 배를 넘었다.

□ 세계 기후 현황(2026/8/2-2026/8/8)

■ 유럽:

심화되는 가뭄과 확대되는 폭염으로 인해 등숙기에서 성숙기에 이른 여름작물의 수확량 전망이 더욱 낮아졌다. 주(週)가 진행됨에 따라 서유럽 상공의 강한 고기압 능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프랑스 중부와 남부에서 폴란드 남부 및 발칸반도 북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평년보다 4~8° C 높은 기온을 만들어내었다. 모니터링 기간 초반에는 더 서늘한 공기가 유입되기 전에 스페인 북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기온이 30° C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는 고온이 더욱 지속적이고 심했으며, 특히 독일 남동부 39.4° C, 오스트리아 동부 40.7° C, 슬로바키아 서부 40.6° C, 헝가리 남부 40.2° C, 루마니아 북서부 41.2° C의 두드러진 낮 최고기온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고온은 여름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간 정도에서 극심한 수준의 가뭄에 시달려 온 등숙기에서 성숙기의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의 수확량 전망을 더욱 악화시켰다. 강수량은 지역별 변동이 매우 컸으며, 프랑스 남서부(국지적으로 60mm 이상)와 이탈리아 북동부(30~100mm)뿐만 아니라 폴란드 중부와 동부(20~60mm)의 일부 지역에서도 보통에서 많은 양의 소나기와 뇌우가 내리면서 더 서늘한 공기의 유입을 알렸다. 지중해 분지 전역에서는 소나기가 더욱 간헐적으로 내렸으며, 스페인에서 그리스와 발칸반도 남부에 이르는 대부분의 작물 재배지역은 10mm 미만의 강수량을 보고했다. 반대로 유럽 최북단의 바람받이 지역에서는 보통에서 많은 비(15~80mm)가 내렸다. 최신 위성 기반 식생건강지수(VHI)는 프랑스와 헝가리에서 연중 이맘때 기준으로 관측 기록이 시작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잉글랜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발칸반도에서는 VHI가 나타내는 작물의 생육 활력이 세르비아 북부와 그 주변 지역의 극히 불량한 수준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동부의 매우 양호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지상 기상관측소 자료는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 및 위성 자료를 활용했다.



■ 구소련(서부):

주 후반에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소나기와 다소 낮은 기온이 나타나기 전까지, 계절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서부와 중부의 작물 재배지역에서는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3~7° C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벨라루스 남부에서 40.3° C, 몰도바 북부에서 40.2° C, 우크라이나 북서부에서 39.2° C에 달했다. 이러한 더위는 생식생장 후반기에서 등숙기에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7월 하순에 광범위하게 내린 비가 여름작물이 최근의 고온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더 동쪽의 러시아 서부에서는 더위의 강도가 다소 약했으며, 남부 연방관구 중부에 위치한 로스토프주에서는 최고기온이 38° C에 근접했지만, 로스토프의 북쪽과 남쪽 지역에서는 30° C대 중반을 기록했다. 모니터링 기간 말에는 강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서부와 북부의 작물 재배지역에 광범위하지만 강우량의 변동이 매우 큰 소나기와 뇌우(2~55mm)가 발생했으며, 이후 기온은 평년 수준 또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 남부 연방관구의 서부와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고온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경지는 여름철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평년보다 넘치는 강우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 결과 고온에 대한 내성이 더 높았다.

■ 호주:

대체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호주 서부와 남부에서는 강우량의 변동이 매우 컸고, 더 동쪽 지역으로 갈수록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다. 서호주에서는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2~30mm)가 내려, 남부의 영양생장기에서 북부의 생식생장기에 이르는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토양 수분 상태를 개선했다. 또한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성 및 레이더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소나기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호주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강수량이 5~30mm를 기록한 반면, 더 북쪽의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와 퀸즐랜드주 남부에서는 완전히 건조한 상태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최근 호주 중동부에서 건조화 경향이 나타났음에도, 최신 위성 기반 식생건강지수(VHI)가 나타내는 작황 상태는 대륙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낮았으며, 주요 겨울작물 재배지역 바깥에서는 산발적으로 야간 동결(-3~-1° C)이 발생했다.

■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강우량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중국 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약하거나 보통 수준의 소나기(10~50mm)가 내린 반면,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일부 지역에는 25~100mm의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높았음에도 중기 생육 단계에 있는 옥수수과 대두에 적절한 시기에 수분을 공급했다. 양쯔강 유역 일부를 포함한 중국 중부 지역에는 10~100mm의 비가 내렸으며, 국지적으로는 100mm를 넘는 강수량을 기록해 벼와 여름작물의 생육을 뒷받침했다. 반면, 네이멍구와 화북평원에서는 강수량이 25mm 미만에 그쳤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평년 대비 최대 5° C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 C대를 기록했다. 신장에서는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어 최고기온이 30° C대 후반에서 40° C대 초반에 달했으며, 이는 면화에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중국 남부와 남동부에서는 강수량의 변동이 더욱 컸지만, 전반적으로 단작 벼의 생육에 유리한 계절적 고온이 나타났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에 10~50mm의 비가 내린 반면, 남한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강수량은 10mm 미만에서 100mm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태풍 돌핀이 해안에 접근함에 따라 류큐 열도와 저장성 해안 지역에서는 기간 후반에 강우량이 증가했다.

■ 아르헨티나:

자료없음

■ 브라질:

자료없음